

# 혁신 클러스터 기반 구축에 '앞장'

### 전북대, 산학협력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공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열렸다. 전북대의 이번 대통령 표창은 대학의 연구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산학협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전북대는 1993년 현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의 전신인 산학연지역 컨소시엄센터 설립 이후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산학협력중점사업 호남권역 주관기관 선정, 연구마을지원사업 주관기관 2회 연속 선정, 맞춤형기술과 트너지지원사업 호남·제주권역 주관기관 2회 연속 선정 등 다수의 협력과제를 수행하며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또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우수기관 선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2회 연속), 창업보육센터 운영평

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 대학 내 산학협력 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최근 3년간 1,391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541건의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등 우수 연구 기반 사업 수행과 기술사업화 성과 확산을 위해 산학연 연계교육, 지원사업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와 같은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공동 주관하는 대학 캠퍼스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전북도 및 전주 특화기업을 유치하고, 대학이 갖고 있는 우수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우리 전북대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대학 내에 집적화해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과 함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신산업



전북대학교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과 인프라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 성장지원을 위한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수주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학이 가진 인프라가 기업의 혁신적 성장과 청년 일자리 확보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유공자를 격려하고 기술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오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하반기 교원 '우리가 겪은 아픈 36년간의 그 시절'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 수용

### 내달 3일부터 일본 경제보복 규탄 영화 '태지의 최후' 전주 시사회 열려

전북도교육청이 2019년 8월 말(하반기)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55명을 전원 수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계발도도 및 건강관리 등을 고려해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올해 2월 말 명예퇴직 희망자 174명에 대해서도 교원의 삶의 질 향상 및 교직사회의 원활한 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전원 수용한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2019년 8월 말 명예퇴직 대상자는 공립유치원 1명, 공립초등 6명, 공립중등 22명, 사립중등 26명 등 총 55명이다. /장은성 기자

## '우리가 겪은 아픈 36년간의 그 시절'

### 내달 3일부터 일본 경제보복 규탄 영화 '태지의 최후' 전주 시사회 열려

지난 14일 서울 대극장에서 영화 '815 군산:태지의 최후' 시사회가 열렸다. 이 영화는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규탄함과 동시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전국에서 릴레이로 상영될 예정이다.

영화 '815 군산:태지의 최후'는 1945년 8월 14일부터 해방을 맞은 15일까지 하루 동안 일어난 이야기로, 대한민국 근대사를 대표하는 9명의 극화된 인물들이 얽히고 설켜며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각 캐릭터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내세우지만, 태풍으로 인해 날려온 태지로 인해 모두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특히 '815 군산:태지의 최후'에는 일제 강점기를 대표하는 악질 친일경찰, 조선인들을 괴롭히고 지배하는 일본군 헌병장교, 비참한 조선을 상징하는 물리학 양반출신 기생, 독립군 행세를 하는 기회주의자, 아나키스트 길러, 일본에 대항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지식인, 한일간의 정세를 이용해 오로

지 돈만 벌려는 기업인, 주먹과 권력으로 그 시절을 버텨야 하는 건달들, 이렇게 9명이 등장한다.

시사 일정은 전북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9월 3일, 6일, 10일, 17일, 20일, 24일 오후 8시에, 그리고 9월 7일과 21일에는 전주 시네마타운에서 오후 5시에 상영된다. 상영 후에는 감독과의 GV도 준비돼 있다.

한기중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어떤 한 부류의 캐릭터들의 편에서 서서 이야기를 바라보게 하고 싶지 않았다"며 "우리가 겪은 아픈 36년간의 시절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를 구현하며 살수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또한 한 감독은 "지금에 와서 그 시절의 어떤 인물이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픈 시절이 각자에게 그렇게 밖에 살 수 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전한다.

전주 출신인 한기중 감독은 "여전히 과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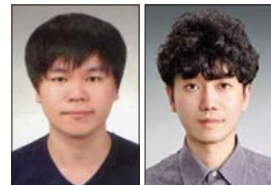
일본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또한 청소년들이 그런 과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 문의는 전주교 63회 동문회(000-1111-1111)로 하면 된다. 또한 릴레이 시사회를 위한 후원계좌는 (한기중:투시드피쳐스 9002-11767-7833-0)이다. 후원금은 다음 시사를 위해 사용되고, 1구좌에 12,000원 이상 할 수 있다. 단, 원하는 사람에게 한에 1구좌당 다음시사의 티켓 2장을 제공한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김종윤·김준범씨 글로벌박사 펠로우십 선정

### 전자공학부 박사과정생 나란히 선발...연 3천만원 지원

전북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종윤(지도교수 이지훈)·김준범(지도교수 박석환) 대학원생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9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 D. Fellowship)'에 나란히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종윤 김준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프로그램으로, 학위과정 기간 동안 연간 2천만 원의 등록금 활동비와 1천만 원 이내의 등록금을 최장 5년간 지원 받게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김종윤 대학원생은 변형 효과를 이용한 기계적 변형 감지 센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기 분자들의 구조와 정렬 상태의 변형에 대한 변형 효과 의존성을 연구하고, 이를 투명 유전 센서로 응용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분야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윤 대학원생은 "항상 관심 가져 주시는 지도교수님과 디스플레이공학 연구실 구성원분들 덕분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 기회를 발판으로 주도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자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준범 대학원생은 '블리우드 무선접속 네트워크 하

행링크 시스템에서의 딥러닝 기반 고속 최적화' 주제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차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구조인 클라우드 무선접속 네트워크 시스템의 에너지·주파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딥러닝·강화학습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김준범 대학원생은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에 선정될 수 있게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신 지도교수님과 무선통신신호처리 연구실 동료에게 감사하다"며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영향력있는 연구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종윤·김준범 대학원생은 전북대 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진학했으며, 대학원 재학 기간 중 BK21+ HOPE-IT 인력양성사업단(단장 정용재 교수)의 지속적인 장학 지원을 받으며 다수의 SCI급 저널에 제 1저자로 논문을 게재하고, 국내외 학회에서 여러 차례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6일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19년 9월 1일자 유·초·중등 신규교사 53명(유치원 23명, 초등 13명, 중등 1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장을 받는 신규교사 53명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9월 1일부터 도내 유·초·중등학교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특히 이날 초등교사 동아리 '동요생양상발'이 영화 알리던 OST 'The Whole New World'의 1곡을 불러 신규교사들의 새로운 첫걸음을 축하했다. /장은성 기자

김승환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질문에 귀 기울이고 기다려주는 자세를 잊지 말아달라"면서 "교사로서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동료 선생님들과 의미있는 수업 나눔을 통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에 부모님과 친척 등을 초청해, 전북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교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를 함께 하며 감동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